1990. 8. 27. KyungNam Daily News 慶南新聞

[illegible]지는 의문이
욕이 근로소득자들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유인책이 이번 세제개
에서 제대로 강구되지
다는 지적이 일반적이
번 세제개편안에서 제
고있는 勤所稅경감방안
종 소득공제의 확대와
제도의 유지라는 2
로 요약된다.
공제의 확대책으로는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연2백30만원에서 4
으로확대됐다. 또 의
제대상이 넓어지면서
도가 연24만원에서 60
로 인상됐다. 월평균
백만원이하로서 부
이있는 무주택세대주
자들을 대상으로 연
원까지 특별공제해주
도 신설됐다. 퇴직
제액도 상당히 올랐

세액공제제도는 전
세율체계의 손질이
경우 활용되는 임
적인 수단이기 때문
제개편과함께 이 제
속 유지한다는 것
히 부자연스런 일이
다. 그러나 이같은 편
制내지 稅政에서 함

해설

勤所稅혜택 회의적 반응

공제방안 賃金상승 반영에 그쳐

에 의한 근소세 경감혜택이 근로소득자들의 입장에서볼때 만족할만한 수준인가. 이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러나 회의적이다. 그 까닭을 따져보자.

우선 근로소득 공제의 대폭(?)확대와 세율조정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들중 과세자의 비율은 거의줄지 않을 전망이다. 89년의 연말정산결과 과세자비율은 43.7%였으며 내년의 과세

방안들이 그간의 임금상승을 뒤따라 가면서 반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뜻한다. 오는 92년만 되면 과세자비율이 89년보다 더 올라갈 것이 확실시 된다.

더욱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사업소득자들의 세부담을 균형있게 올리는 방안은 거의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이문제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은 그대로 남게 됐다.

다만 궁여지책으로 의사 변호사등 자영업자와 거래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와 과세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영업자가 계산서를 교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10%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의도대로 실효성있게 운용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약자의 입장에 있는 거래자들에게 사업소득자들의 원천징수분 세금마저 전가될 우려가 높을 뿐이다.

한편 근로소득자들의 재산형성을 돕기위해 저축을 권장, 유인할 수 있는 세제상의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사실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근로자가 월급여의 30%한도 안에서 3년이상의 장기저축 및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여 얻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제도가 신설됐으나 이 정도는 아무래도 미흡하다는 평을 면하기 어렵다. (연합)

核폐기물 처리 공헌할터

東京大 첫 한국인 교수 安俊弘박사

인터뷰

한국原子力 괄목성장 기대

"1人者되는것 교포 지위향상 지름길"

『일본지식인층에도아직 한국을 잘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로 잦은교류를 통해 이해할수있는 터전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인으로서는 東京대학 개교이래 처음으로 교수직을 맡은 安俊弘박사(33·원자력공학)는 일본에 대해 한국인이 가져야할 新思考로 잦은 접촉을 통한 이해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安박사는 지난88년5월 美캘리포니아대학과 89년 3월 東京대학에서 박사선폐기물지층처분에 관한 연구로 각각 박사학위를 받고 동경대학에서 화학공학강좌를 맡고있다.

마산성안백화점 安喆中사장(62)의 삼남중 장남인 安박사는 지난4월 결혼한 부인 朴正惠씨(30)와함께 조상의 산소를 돌러보기위해 고향인 함안대산을 찾았다.

―원폭피해탓인지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좋지못하고 한국에서도 방사선폐기물처리가 고민인데.

『원자력은 역사적으로 볼때 군사적 목적으로 출발해 초기 불행한 결과를 빚었지만 관리여하에 따라 행 불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원자력은 모든 기술의 집약적산물로 한국화학자들의 학술논문이상당히 많아 원자력부문의 괄목할만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安박사는 재벌급 교포2세에게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거부감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데다 방학을 이용해 연세대에서 잠시 배운 한국어 실력도 日本출생답지않게박사감이다.

―교포들의 지위향상을 꾀하려면.

『빈털터리였던 교포1세들은 경제적인 면의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1세들의 노력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찾은만큼 2세들이 각 분야에서 제1인자가 될때 일본인들의 인식도 바뀌고 대우도 달라질 것입니다.』

―법대에 가고싶었지만교포는 사법시험을 칠 수없어 포기하고 에너지연구를 통해 조국에 기여하기위해 원자력공학을 택했다는 安박사는 우선 자신의 주변부터 이해를 구하면서 교포들의 지위향상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安박사는 또 조총련과의 관계에 대해 일상적인 대화를통해 불신을 없애고 통일에 관한 서로의 갈등은 제쳐두고 다각적인 방안을 갖고 기회가있으면 무조건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포는 한민족에 모두 아웃사이더란 생각이 든다는 安박사는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일본국립대학에 재직하는 외국인은임기가 없음에도 임기없이 일본인 교수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

〈李善皓기자〉

주택공사는 오는 9월 蔚山 삼호지구 5백50호 東草校洞지구 2백90호 忠州 連守지구 4백40호등 3개지구 총1천2백80호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선정키로 했다.

또 光州 河南과 서울中溪지구등 전국 6개지구 5천7백54호의 영구임대주택입주자도 선정하는등 9월중 모두 7천34호의 장기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7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이들 주택중 장기임대주택은 모두 내년6~7월중에, 영구임대주택은 春川 孝子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12월에 입주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도시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호당1백만~2백만원수준으로 최종결정하는한편입대료는호당 월3만~4만원범위내에서 정하기로했다.

韓國-뉴질랜드 간 漁業협정 4년연장

오는 9월말로 만료되는 한국과 뉴질랜드간의 어업협정이 4년간 연장된다.

수산청은 25일 어업교섭단을 뉴질랜드에 파견, 어업협정 경신문제를 논의한 결과, 양국간 어업협정을 오는 94년9월말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산청은 또 이번 협상에서 한국선박이 kℓ당 1백12뉴질랜드달러 (美貨 약 70

야영대회참석 격려

○…安秉珪 의원(民自·진양)은 25일 금곡면 장지 마을서 주민간담회를 가진후 문산면 4H청소년야영대회에 참석하여 격려.

영업사원모집